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정책의 실태와 향후 과제

김기홍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imkh@cni.re.kr)

이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청년농부 육성과 관련하여 충남에서 실시 중인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정책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통해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CONTENTS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충남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3. 충남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4. 충남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실태
5.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요약

- 충남의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은 2016년 롯데슈퍼의 사업 제안으로 시작되어 2017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거쳐 2017년 충남도가 선정되면서 1차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8년에 2차 사업이 진행된 상태로 지금까지의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농업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 가운데 고령화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어 후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 부문 역시 청년층의 비율은 줄어드는 대신에 고령 농가의 비율은 높아져 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청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심에 비해 충남의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은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충남의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의 실태 조사를 위해 논산과 아산시 멘토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결과, 포기한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 과정에 대한 멘토의 전적인 책임이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청년 육성이라는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수 사례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도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단계와 과정에 대한 검토, 지역 단위의 다양한 친환경농업 단체를 활용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강화, 권역 단위를 넘어선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 이에 충남의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의 비전과 기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충남의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구상이 필요함을 제안함

0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충남의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은 2016년 롯데슈퍼의 사업 제안으로 시작되어 2017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거쳐 2017년 3월에 충남도가 선정되면서 진행되었음
- 사업 주체 시군으로는 충남의 아산시와 논산시, 부여군, 홍성군이 선정되었고 각 지역에서 멘토가 1명씩 선정되어 청년농부의 농촌 정착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2017년 8월에 사업 1년차 47명을 선발한 이후 2018년 10월에는 사업 2년차 청년농부를 선발한 상태로 지금까지의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 있는 권역 2개소를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과제를 진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충남의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단계적인 과정으로 정립시키고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계획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02 충남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1. 청년 농업인 개념

● 농업인과 청년

- 우선 농업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고자 함
 - 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청년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각종 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로 두고자 함

● 영농 후계

- 청년 농업인에는 영농을 부모로부터 승계받은 경우가 존재하며 그 가운데서도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3.24 개정)로, 영농경력(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대학의 농업계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가운데 선발되는 과정을 거침

- 다음으로 4-H는 만 34세 이하의 농업인 모임으로, 해당 연령의 청년층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영농 후계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음

● 귀농귀촌

- 귀농귀촌은 새롭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이 가운데 귀농인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로 하고, 이외에 자발적인 이유로 이주한 자는 귀촌인으로 두고 있음¹⁾
- 현재 귀농귀촌 청년층의 경우 귀농인 수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귀촌 인구는 전체 귀촌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 영농 후계자가 아닌 이들 귀농귀촌인들을 지역에 정착시켜 농업으로 유도한다면 안정적 농업인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청년 농업인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과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해 본다면, 청년 농업인은 부모가 농촌 지역에 사는지 혹은 새롭게 농촌 지역에 들어온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며 그 가운데 다시 농업과 비농업으로 나누어짐
- 이에 따라 후계농업인과 귀농인,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와 귀농인이 아닌 자로 구분할 수 있음 (김기홍, 2017)
- 이 가운데 충남의 친환경 청년 농부 대상자로는 귀농인과 귀농인이 아닌 자 가운데 농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귀농인, 그리고 일부 후계농업인의 참여도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표 1> 청년 농업인의 구분

	부모가 농촌지역에 사는 자	새롭게 농촌지역에 들어온 자
농업	후계농업인	귀농인
비농업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	귀농인이 아닌 자

출처: 김기홍(2017),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 및 정책 추진 방향, 충남리포트 Vol. 250

1) “귀농어업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귀촌인”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귀농귀촌 정의를 변경하게 됨

2. 충남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2.1. 충남 농가 인구 및 청년 농업인 추이

● 충남 농가 인구 추이

- 충남 농가는 125,886호로 전국 농가 1,042,017호의 12.1%를 차지함
- 충남 농업인은 288,800명으로 전국 농업인 2,422,256명의 16.3%를 차지함

<표 2> 충남 농가 인구 추이

구분	2010		2017		농가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인구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 (가구)	농가인구 (명)	농가 (가구)	농가인구 (명)		
전국	1,177,318	3,062,956	1,042,017	2,422,256	-1.7	-3.3
충남	151,424	394,324	125,886	288,800	-2.6	-4.4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60세 이상 농업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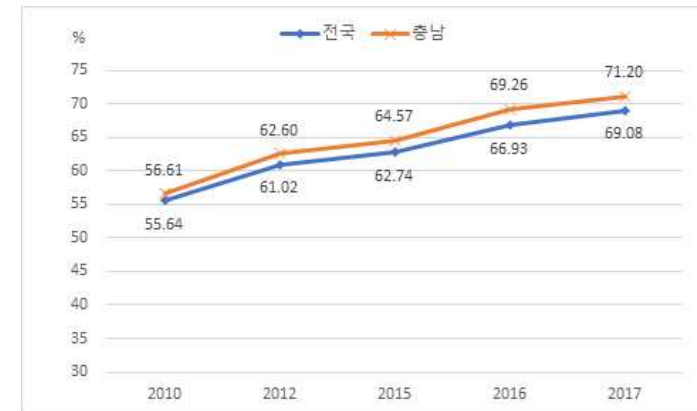
- 60세 이상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는 2010년 전국 1,129.7천명(55.6%)에서 2017년 1,200.2천명(69.1%), 동기간 충남은 2010년 152.7천명(56.6%)에서 2017년 150.2천명(71.2%)로 증가하였음

<표 3> 60세 이상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60세 이상 종사자)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1,129,748	1,185,682	1,177,979	1,178,272	1,200,224	0.9
충남	152,776	160,618	148,926	148,008	150,254	-0.2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그림 1> 60세 이상 농업 종사자 비율(3개월 이상)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40세 미만 농업종사자

- 40세 미만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는 2010년 전국 115.5천명(5.7%)에서 2017년 43.4천명(2.5%), 동기간 충남은 2010년 15.8천명(5.9%)에서 2017년 5.1천명(2.4%)로 급격하게 감소함

<표 4> 40세 미만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40세 미만 종사자)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115,583	69,421	68,168	47,783	43,415	-13.1
충남	15,858	8,858	8,274	6,314	5,149	-14.8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그림 2> 40세 미만 농업종사자 비율(3개월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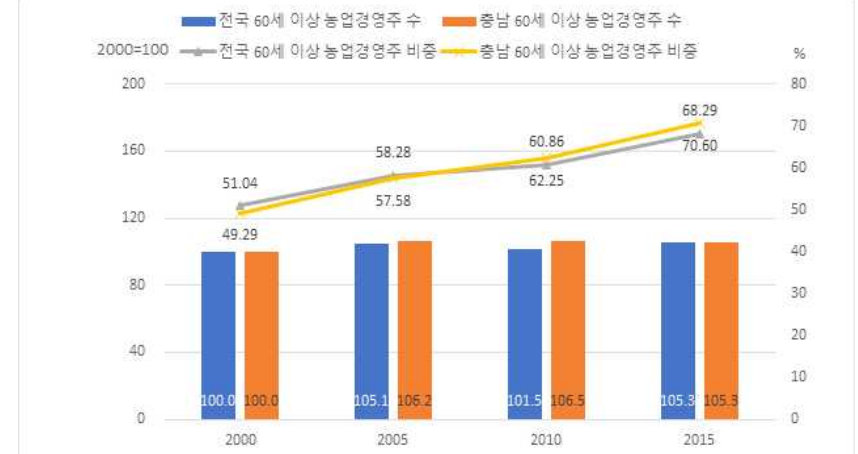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추이

- 농업경영주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농업경영주는 2000년 전국 706.1천명(51.0%)에서 2015년 743.3천명(68.3%)으로 증가하였으며, 충남 역시 2000년 88.4천명(49.3%)에서 2015년 93.2천명(70.6%)으로 증가하였음

<표 5> 60세 이상 농업 경영주 추이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국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수	706,148	741,815	716,557	743,303
충남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수	88,499	93,972	94,254	93,204
전국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중	51.04	58.28	60.86	68.29
충남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중	49.29	57.58	62.25	70.60



주 : 농업경영주 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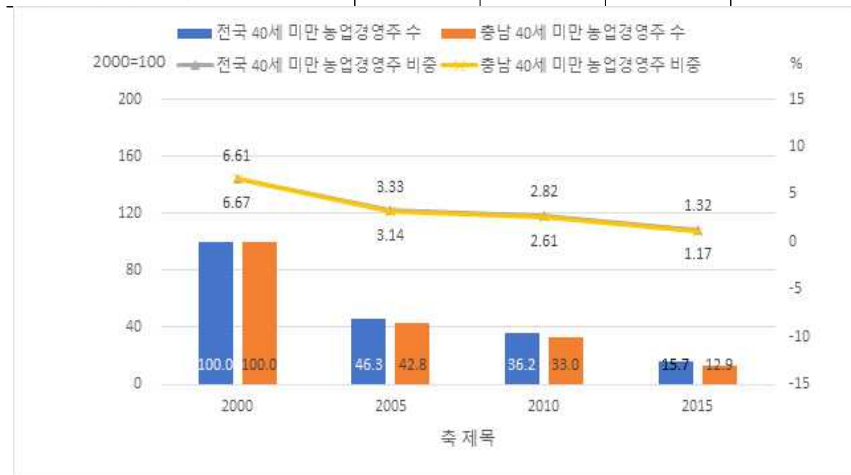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추이

- 40세 미만 농업경영주는 2000년 전국 91.5천명(6.6%)에서 2015년 14.4천명(1.32%)으로 감소하였으며, 충남 역시 2000년 11.9천명(6.7%)에서 2015년 1.5천명(1.2%)으로 감소하였음

<표 6>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추이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국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수	91,516	42,392	33,143	14,366
충남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수	11,982	5,132	3,959	1,541
전국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중	6.61	3.33	2.82	1.32
충남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중	6.67	3.14	2.61	1.17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주 : 농업경영주 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 청년농(40세 미만) 농축산물 경영형태별 농업경영주

- 전체 농가 가운데 40세 미만의 청년농의 비중은 2010년 2.8%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에는 2010년 2.6%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1.2%로 줄어듦
- 농축산물 경영형태별로는 농업경영주 가운데 청년농의 비중은 충남의 경우 2010년에는 화초 및 관상작물이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축산이 2.6%로 가장 높음

<표 7> 농축산물 경영형태별 청년농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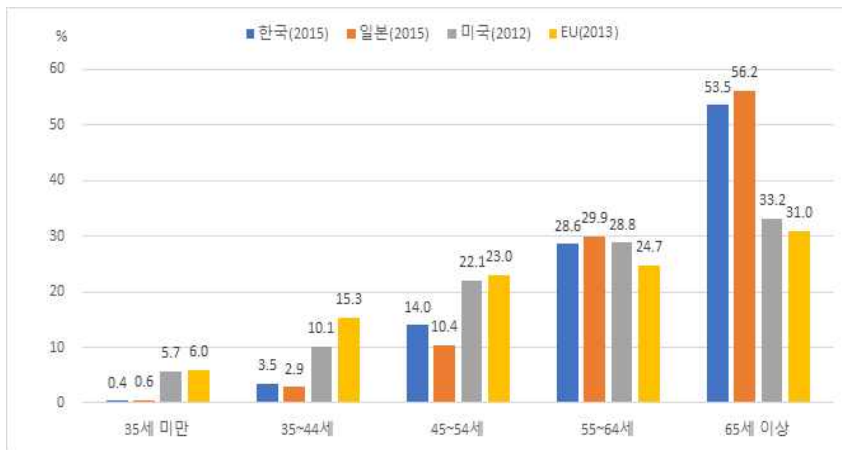
구분		2010			2015		
		전체	청년농	비중	전체	청년농	비중
전 국	전체	1,177,318	33,143	2.8	1,088,518	14,366	1.3
	논벼	523,153	13,184	2.5	453,896	4,801	1.1
	식량작물	115,978	2,978	2.6	138,047	1,547	1.1
	채소·산나물	223,873	5,990	2.7	198,138	2,584	1.3
	특용작물·버섯	28,063	859	3.1	38,576	490	1.3
	과수	170,237	5,657	3.3	171,836	2,589	1.5
	약용작물	7,290	262	3.6	10,454	176	1.7
	화초·관상작물	18,635	969	5.2	14,257	271	1.9
	기타작물	8,934	209	2.3	10,013	224	2.2
	축산	81,155	3,035	3.7	53,301	1,684	3.2
충 남	전체	151,424	3,959	2.6	132,008	1,541	1.2
	논벼	88,424	2,157	2.4	75,217	711	0.9
	식량작물	10,735	303	2.8	12,816	137	1.1
	채소·산나물	22,193	555	2.5	20,522	269	1.3
	특용작물·버섯	5,740	222	3.9	5,926	97	1.6
	과수	10,158	267	2.6	7,897	105	1.3
	약용작물	550	14	2.5	707	11	1.6
	화초·관상작물	1,446	69	4.8	1,018	15	1.5
	기타작물	1,280	19	1.5	833	15	1.8
	축산	10,898	353	3.2	7,072	181	2.6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청년 농업인 연령분포 국제 비교

- 전체 농업경영주 가운데 65세 이상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중(2015년 기준)은 한국이 53.5%와 일본이 56.2%이었으며, 미국은 33.2%(2012년 기준), EU는 31.0%(2013년 기준)로 나타남
- 전체 농업경영주 가운데 35세 미만의 젊은 농업경영주의 비중은 한국이 0.4%로 가장 낮고, 일본이 0.6%, 미국 5.7%, EU 6.0%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농업경영주 연령분포 국제비교



자료: 통계청(2015), 日本 農林水産省(2015), USDA(2012), EUROSTAT(2013).

출처: 마상진(2017) 외,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영농경력 5년 미만 농가 경영주 변화

- 농업경영주 가운데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자는 2005년 전국 49,840호에서 2015년 53,284호로 감소하였으며, 충남은 2005년 5,172호에서 2010년 4,723호로 감소함
- 이 가운데 4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이 2005년 15.9%에서 2015년 6.6%, 충남은 2005년 16.7%에서 2015년 6.9%로 감소함

<표 8> 영농경력 5년 미만 농가 경영주 변화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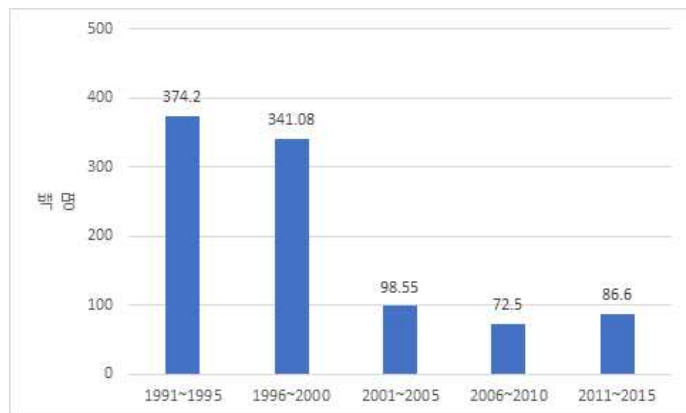
연령대	전국				충남			
	2005		2015		2005		2015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39세 이하	7,903	15.9	3,543	6.6	862	16.7	327	6.9
40~49세	14,226	28.5	10,907	20.4	1,488	28.8	922	19.5
50~59세	14,543	29.2	19,810	37.1	1,431	27.7	1,629	34.5
60~69세	10,461	21.0	15,428	28.9	1,079	20.9	1,467	31.1
70세 이상	2,707	5.4	3,696	6.9	312	6.0	378	8.0
전체	49,840	100.0	53,384	100.0	5,172	100.0	4,723	100.0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후계농업경영인 추이

-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50세 미만(2013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령층이 높아짐) 가운데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농업 관련 학과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농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가운데 선발해 왔음
- 2000년 이전 영농후계자 선정 수는 3만 명 이상이었으나 2000년 이후 영농후계자 선정 수가 1만 명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그림 4> 후계농업경영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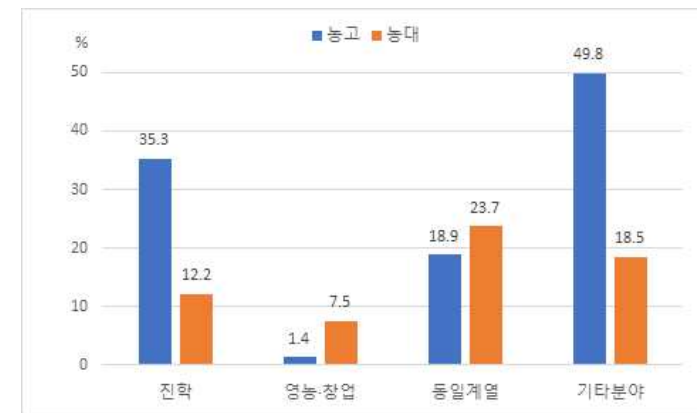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 주요통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출처 : 마상진(2016),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삼락농정포럼 발제문.

● 농업계 졸업생 취업 현황

- 농업계 학교는 2015년 농업계 고등학교 63개교에 20,45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30개 대학에 농산업 관련학과가 있으며 29,228명이 재학 중임(한국농업교육협회 소속 기준)
- 농업계 학교 졸업생 중 취농비중은 농고가 1.4%, 농대는 7.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마상진(2016), '한국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삼락농정포럼 발제문)됨

<그림 5> 농업계 졸업생 취업 현황



자료 : 한국농업교육협회(2015),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2015)
출처 : 마상진(2016),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삼락농정포럼 발제문.

2.2. 귀농귀촌 관련 추이

● 전국의 귀농 및 귀촌 가구 추이

- 2017년 현재 전국의 귀촌 인구(가구원포함)는 497,187명으로 2013년 대비 22.6% 증가하였고 귀농 인구(가구원포함)는 19,630명으로 2013년 대비 13.4% 증가하였음

<표 9> 귀농·귀촌 인구수

(단위:명)

구 분	'13년 (A)	'14년	'15년	'16년	'17년 (B)	증감 (B-A)
귀농·귀촌인구	422,770	457,511	486,638	496,048	516,817	22.2
귀농인구	17,318	17,976	19,860	20,559	19,630	13.4
귀촌인구	405,452	439,535	466,778	475,489	497,187	22.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06.27.)

● 충남의 귀농 및 귀촌 가구 추이

- 2017년 현재 귀농 가구원 수는 전국 2013년 17,318명에서 2017년 19,630명으로 13.4%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충남은 1,933에서 2,111명으로 9.2% 증가하였음
- 귀농 가구 중 40세 미만 귀농 가구원 수는 전국 2013년 4,834명에서 2017년 4,788명으로 1.0%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충남은 526명에서 470명으로 10.6% 감소하였음
- 귀농 가구 중 40세 미만 귀농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2017년 동안 전국은 27.9%에서 24.4%로 3.5%감소하였으며, 충남은 27.2%에서 22.3%로 4.9% 감소하였음

<표 10> 충남 귀농 가구원 40대 미만 현황

(단위:명)

구분		2013			2015			2017		
		전체	40대 미만	비중 (%)	전체	40대 미만	비중 (%)	전체	40대 미만	비중 (%)
전 국	귀농가구원수	17,318	4,834	27.9	19,860	5,108	25.7	19,630	4,788	24.4
	귀농인수	10,312	1,174	11.4	12,114	1,168	9.6	12,763	1,340	10.5
	동반가구원수	7,006	3,660	52.2	7,746	3,940	50.9	6,867	3,448	50.2
충 남	귀농가구원수	1,933	526	27.2	2,206	495	22.4	2,111	470	22.3
	귀농인수	1,123	113	10.1	1,390	116	8.3	1,405	135	9.6
	동반가구원수	810	413	51.0	816	379	46.4	706	335	47.5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귀농귀촌 인구 동향

- 귀농 가구주는 2015년 기준 50대(40.3%), 60대(24.4%), 40대(20.0%) 순으로 높았으며, 50대 귀농 가구주 비율은 2011년 37.4%에서 2015년 40.3%로 2.9% 증가하였음
- 40세 미만의 청년층 귀농은 연1,150가구로 전체 농가의 9.0%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음
- 40세 미만의 귀농농가는 2013년 1,164농가에서 2015년 1,150농가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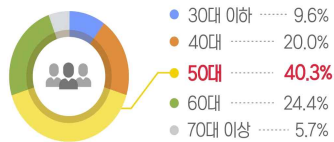
<표 11>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가동 추이

(단위: 명)

연도	농촌(군)→도시(A)	도시→농촌(군)(B)	농촌(군 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입(B-A)			
			계	수도권	지방대도시	중소도시
2006	458,524	442,086	△16,438	△12,041	△831	△3,566
2007	462,431	472,048	9,617	1,967	9,108	△1,458
2015	333,773	375,073	41,300	21,589	19,334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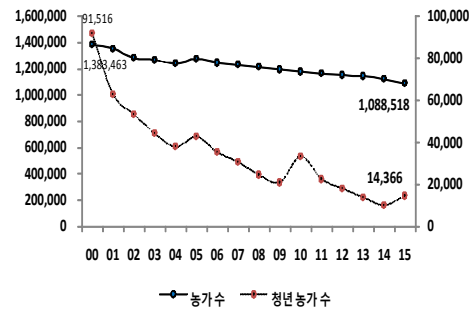
자료 : 주민등록인구가동통계, 통계청

<그림 6> 귀농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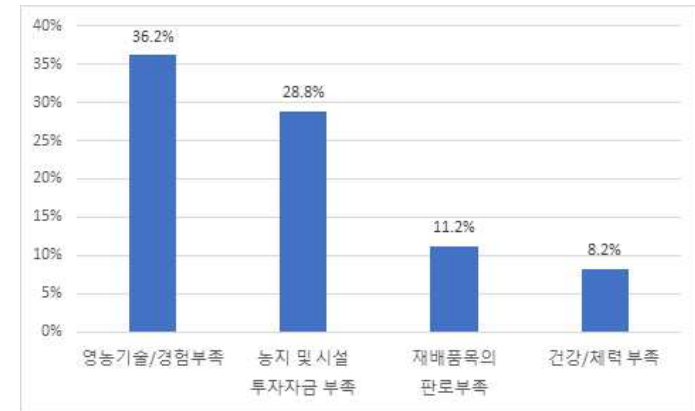
* 2015년 귀농귀촌 통계

<그림 7> 농가 및 청년 농가수 감소 추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11.21.)

<그림 8> 귀농인의 영농 활동 수행 시 어려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11.21)

● 귀농귀촌 유형

- 귀농은 농촌출신이 도시 은퇴 후에 연고지로 이동하는 U턴이 많음
- 귀촌은 농촌출신이 은퇴 후 비 연고지로 이주하는 J턴이 많음

<표 12> 귀농귀촌 유형

구분	U턴	J턴	I턴
귀농	41.4%	26.8%	25.0%
귀촌	28.0%	31.3%	30.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11.21.)

● 귀농귀촌 애로사항

- 귀농귀촌의 애로사항으로는 크게 3가지가 거론되었음. 첫째, 귀농 초기 영농기술에 대한 부분과 농지·시설 투자 자금 부족 등이었고 둘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가구 총소득이 급격히 하락하는 점과 주거 확보에 대한 문제점, 마지막으로 이주 초기에 '농업소득 부족' 분에 대한 일자리 확보 및 정보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첫 번째 귀농인의 영농 활동 수행 시 어려움으로는 귀농 초기 영농기술(36.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지·시설 투자 자금 부족(28.8%)으로 나타남

- 두 번째, 농촌 이주 직후 가구 총소득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해서 귀농가구의 평균 소득은 평균적인 농가소득(3,722만원)의 71.1%인 2,6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귀농 5년차까지 평균 소득은 2,645만원으로 2천만 원 미만 비율이 45.9%로 귀농 가구 초기 경영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13> 귀농귀촌 가구의 평균 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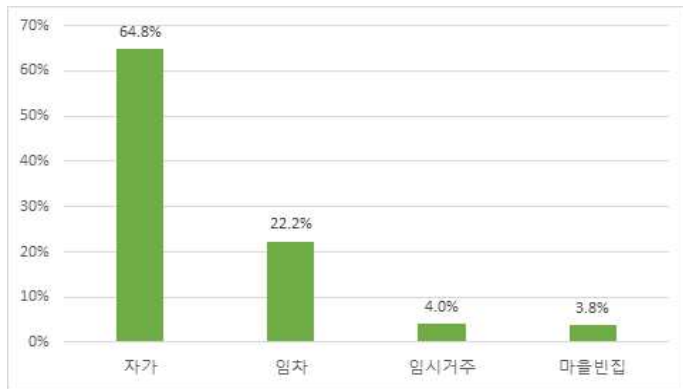
(단위: 만 원)

구분	귀농 직전 연도	이주 첫해	이주 2년차 ('15년이주)	이주 3년차 ('14년이주)	이주 4년차 ('13년이주)	이주 5년차 ('12년이주)
귀농 가구	농가소득	4,574	1,781 (61.1%↓)	1,984	3,071	3,145
	농업소득	-	600	644	1,523	1,666
	농외소득	-	773	965	693	959
귀촌 가구	4,108	2,496 (39.2%↓)	2,585	2,976	2,988	-

출처: 한국갤럽(2016), 『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

- 세 번째, 이주 초기 '농업소득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 및 정보 부족과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보 부족은 주거 확보 애로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됨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11.21.)에 의하면 농외 경제 활동은 농산물·가공식품 판매(11.4%), 자영업(9.3%), 일반 직장 취업(8.4%)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외 경제 활동 가운데 어려움으로는 '능력 부족'이라는 대답이 귀농인의 경우 27.8%, 귀촌인의 경우 24.9%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기회나 정보 부족'이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귀농인의 경우 13.9%, 귀촌인의 경우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의 애로사항은 농업을 처음 접하여 나타나는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될만한 사항으로 판단됨

<그림 9> 귀농 초기 주거 형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11.21.)

● 작물재배면적 귀농가구

- 귀농한 가구 가운데 작물재배 가구의 평균 재배 면적은 0.5ha 미만이 2016년에는 전체의 78.6%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80.9%를 차지하여 2.3%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음
- 귀농한 가구들의 재배 규모는 매우 영세함을 알 수 있음

<표 14> 작물재배면적 규모별 귀농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p, m²)

구분	작물재배 가구수	평균재배면적	0.5ha미만	0.5 ~ 1.0ha 미만	1.0 ~ 2.0ha 미만	2.0ha이상
2017년	7,660	3,815	6,198	1,092	281	89
	(100.0)		(80.9)	(14.3)	(3.7)	(1.2)
2016년	7,800	4,021	6,130	1,187	381	102
	(100.0)		(78.6)	(15.2)	(4.9)	(1.3)
증감	-140	-206	68	-95	-100	-13
	(0.0)		(2.3)	(-0.9)	(-1.2)	(-0.1)

* 귀농인이 농업경영체등록자료에 등록된 재배작물별 재배면적을 집계한 결과임

* 증감의 ()는 구성비 증감을 나타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 2017년 귀농·귀촌인통계.

● 귀농가구 농지 소유·임차 현황

- 귀농가구의 작물재배 가구 7,660 가구 가운데 자기소유의 농지에서만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 자정가구는 4,983가구(65.1%)임
- 타인 소유의 농지를 일부라도 임차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는 2,677가구(34.9%)를 차지함

<표 15> 작물재배 농지의 소유·임차별 현황

(단위 : 가구, %, %p, m²)

구분	작물재배 귀농가구		순수자정가구		일부 임차가구				순수임차가구	
	가구수	평균 재배면적	가구수	평균 자정면적	가구수	평균 재배면적			가구수	평균 임차면적
							자정면적	임차면적		
2017년	7,660	3,815	4,983	3,395	510	6,232	2,718	3,514	2,167	4,214
	(100.0)		(65.1)		(6.7)				(28.3)	
2016년	7,800	4,021	5,059	3,593	572	5,629	2,657	2,971	2,169	4,594
	(100.0)		(64.9)		(7.3)				(27.8)	
증감	-140	-206	-76	-198	-62	603	61	543	-2	-380
	(0.0)		(0.2)		(-0.6)				(0.5)	

* 귀농인이 농업경영체등록자료에 등록한 임차여부별 작물재배면적을 집계한 결과임

* 증감의 ()는 구성비 증감을 나타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 2017년 귀농·귀촌인통계.

● 재배작물별 귀농가구

- 귀농 가구가 재배하는 주요 재배작물은 채소가 43.6%로 가장 높았고, 과수 31.2%, 특용작물 27.0%, 논벼 26.3% 등의 순임
- 가구당 평균 재배면적은 논벼 0.37ha(3,719m²), 과수 0.29ha(2,924m²), 채소 0.19ha(1,927m²), 맥류 0.17ha(1,667m²) 등의 순임

<그림 10> 귀농 가구의 주요 재배작물별 현황



<표 16> 재배작물별 귀농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p, m²)

연도	구분	작물재배 귀농가구	채소	과수	특용	논벼	두류	서류	맥류	화훼	기타
2017	가구수	7,660	3,340	2,390	2,065	2,015	1,138	987	650	179	344
		(100.0)	(43.6)	(31.2)	(27.0)	(26.3)	(14.9)	(12.9)	(8.5)	(2.3)	(4.5)
2016	가구수	7,800	3,184	2,437	1,980	2,113	1,248	1,005	576	204	310
		(100.0)	(40.8)	(31.2)	(25.4)	(27.1)	(16.0)	(12.9)	(7.4)	(2.6)	(4.0)
증감	가구수	-140	156	-47	85	-98	-110	-18	74	-25	34
		(0.0)	(2.8)	(0.0)	(1.6)	(-0.8)	(-1.1)	(0.0)	(1.1)	(-0.3)	(0.5)

* 귀농인이 농업경영체등록자료에 등록한 재배작물과 재배작물별 재배면적을 집계한 결과임

* 한 가구가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배작물별 귀농가구 수의 합계는 작물재배귀농가 수와 일치하지 않음

* 재배작물별 평균재배면적은 작물재배가구 전체가 아닌 당해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의 평균재배면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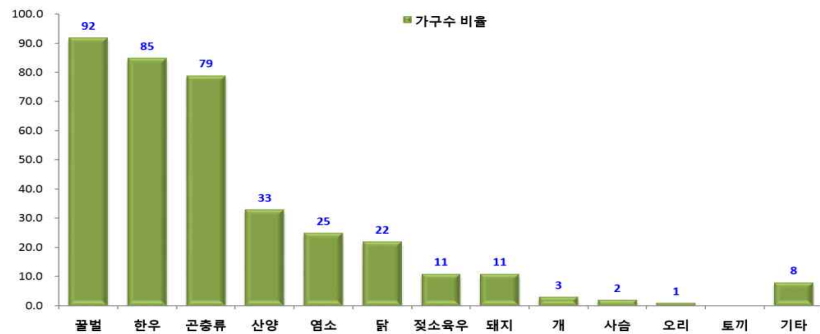
* 증감의 ()는 구성비 증감을 나타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 2017년 귀농·귀촌인통계.

● 사육 가축별 귀농 가구

- 귀농 가구가 사육하는 주요 사육 가축은 꿀벌이 25.9%로 가장 많고, 한우 23.9%, 곤충류 22.3%, 산양 9.3% 등의 순임

<그림 11> 귀농 가구의 주요 사육 가축 현황



<표 17> 사육 가축별 귀농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연도	가축사육 귀농 가구수	꿀벌	한우	곤충 류	산양	염소	닭	젖소 육우	돼지	개	사슴	오리	토끼	기타
2017년	355	92	85	79	33	25	22	11	11	3	2	1	-	8
(구성비)	(100.0)	(25.9)	(23.9)	(22.3)	(9.3)	(7.0)	(6.2)	(3.1)	(3.1)	(0.8)	(0.6)	(0.3)	(0.0)	(2.3)

* 귀농인이 농업경영체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가축을 집계한 결과임

* 한 가구가 여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육가축별 귀농가구 수의 합계는 가축사육 귀농가
구 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 2017년 귀농어·귀촌인통계.

● 청년 농업인 인력구조 전망

- 마상진(2017) 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청년농이 급격히 감소하고, 농촌마을
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농촌마을 당 40세 미만 청년농가 수는 읍지역의 경우 2005년 1.19에서 2015년 0.4명으로 감
소하였으며, 면지역은 0.88명에서 0.24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읍 지역 청년 농가는 전국 2010년 8,742농가에서 2015년 3,501농가로 60.0% 감소, 충남은
1,286농가에서 398농가로 69.1% 감소하고 있음
- 면 지역 청년 농가는 전국 2010년 14,094농가에서 2015년 6,763농가로 52% 감소, 충남은
1,999농가에서 842농가로 57.9% 감소하고 있음

<표 18> 농촌 마을 청년농 분포

구분	마을수(A)			청년농(B)			B/A		
	2005	2010	2015	2005	2010	2015	2005	2010	2015
읍	7,491	8,212	8,698	8,930 (1,057)	8,742 (1,286)	3,501 (398)	1.19	1.06	0.40
면	28,043	28,286	28,094	24,548 (3,590)	14,094 (1,999)	6,763 (842)	0.88	0.50	0.24
전체	35,534	36,498	36,792	33,478 (4,647)	22,836 (3,285)	10,264 (1,240)	0.94	0.63	0.28

출처 : 마상진(2017) 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주 : ()는 충남 40세 미만 청년농부 현황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과거 15년간(2000~2015년)의 신규농가 유입 추세가 2025년까지 지속될 경우 40세 미만 청년농은 2015년 대비 1/4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현행의 신규 유입 농가 변화율이 2025년까지 유지된다면, 40세 미만 청년농 농가는 2015년 14,366호에서 2020년 6,889호, 2025년 3,725호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청년농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3%에서 2020년 0.7%, 2025년 0.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전국 대비 충남 청년농 비중은 12.1% 임을 감안할 때 충남 현행 청년농 비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약 120명 내외의 신규 농업인 유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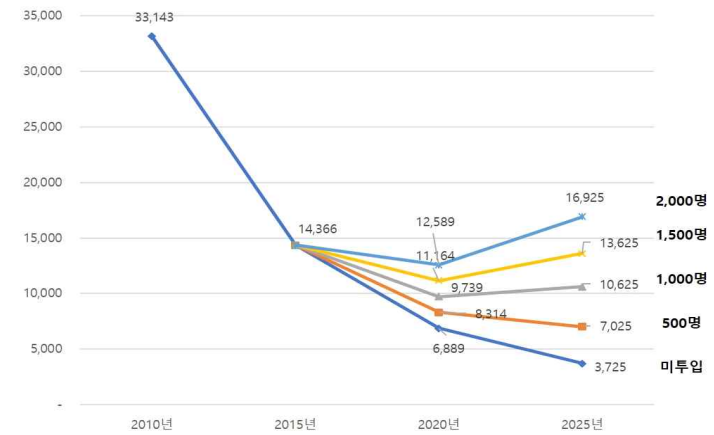
<표 19>청년 농업경영주 변화 전망

구분		2000	2005	2010	2015	전망		변화율(%)	
						2020	2025	15-20	20-25
연령대	20~24세	855	269	115	111	56	33	-0.68	-0.52
	25~29세	6,415	2,113	1,312	681	394	228	-0.69	-0.49
	30~34세	23,023	10,603	5,241	3,362	1,609	955	-0.65	-0.50
	35~39세	61,023	29,407	13,490	10,212	4,830	2,508	-0.67	-0.49
	청년농 전체	91,516	42,392	33,143	14,366 (1.3)	6,889 (0.7)	3,725 (0.4)	-0.66	-0.50
총 농가(천 호)		1,384	1,273	1,177	1,089	1,018	967	-	-

자료 : 통계청(2000·2005·2010·2015), 농림어업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ASMO 추정치.

주 : ()는 비중임

<그림 12> 신규 유입 규모별 청년 농가수 변화 전망



<그림 13> 충남 신규 유입 규모별 청년 농가수 변화 전망



출처 : 마상진(2017)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 충남 전망치는 2015년 기준 전국 대비 충남 비중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치에 곱하여 추정.

2.3. 충남 친환경농업 관련 추이

● 충남 친환경농업 현황

- 충남의 친환경농업 인증별 생산 현황은 유기농업이 1,699호로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44.6%, 출하량은 35.9%를 차지하고 있음

<표 20> 충남 인증별 생산 현황(2017)

(단위 : 호, ha, 톤, %)

구분	유기 비율	계	유기	무농약
농가수	39.3	4,321	1,699	2,622
면적	44.6	5,229	2,333	2,896
출하량	35.9	43,955	15,789	28,166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8)

- 충남의 친환경농업의 연도별 증감률은 농가수의 경우 연간 55%로 감소하고 있으며 면적은 67.2%, 출하량은 62.3%로 감소하고 있음

<표 21> 충남 연도별 친환경농업(저농약 포함)

단위 : 호, ha, 톤, %

구분	2011 (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b)	증감률 (c=b-a)
농가수	9,603	9,377	8,173	6,984	5,544	4,976	4,321	△55.0
면적	15,950	14,554	11,164	9,411	6,950	6,100	5,229	△67.2
출하량	116,636	97,220	113,852	73,993	51,713	50,634	43,955	△62.3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8)

- 충남의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부여군이 832.5ha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양군, 공주시, 서천군 순이었음
- 전체 경지 면적 가운데 친환경농업 인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청양군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의 순이었음

<표 22> 충남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2017)

단위 : ha

구분	친환경 인증 면적				전체 경지면적	친환경 인증 비율	
	유기	무농약	계	순위		비율(%)	순위
천안시	145	200.5	365.5	7	13,271	2.75	7
공주시	315.9	299.1	615.0	3	10,338	5.95	2
보령시	28.9	197.4	226.3	10	12,910	1.75	8
아산시	326.6	128	454.6	6	15,147	3.00	6
서산시	68.7	73.7	142.4	11	26,305	0.54	13
논산시	44.4	241.4	285.8	9	18,886	1.51	10
계룡시	0.5	0	0.5	15	388	0.13	15
당진시	37.4	103.2	140.6	12	24,566	0.57	12
금산군	14.3	35.4	49.7	13	7,665	0.65	11
부여군	267.6	564.9	832.5	1	15,902	5.24	3
서천군	133.4	436	569.4	4	13,270	4.29	4
청양군	467.9	227.6	695.5	2	8,350	8.33	1
홍성군	378.1	113.6	491.7	5	13,423	3.66	5
예산군	66	243.8	309.8	8	18,721	1.65	9
태안군	39	10.6	49.6	14	14,097	0.35	1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8)

- 충남의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부여군이 총 5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천군, 홍성군, 아산시의 순이었음
- 전체 농가 대비 친환경농가 비율은 서천군이 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의 순이었음

<표 23> 충남 시군별 친환경 인증 농가(2017)

단위 :호

구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전체농가	전체농가 대비 친환경농가 비율	
	유기	무농약	계	순위		비율(%)	순위
천안시	181	191	372	6	12,126	3.1	6
공주시	113	134	247	8	9,740	2.5	8
보령시	27	155	182	10	8,418	2.2	10
아산시	345	157	502	4	8,851	5.7	5
서산시	42	84	126	11	10,319	1.2	13
논산시	31	211	242	9	10,609	2.3	9
계룡시	5	0	5	15	542	0.9	15
당진시	16	109	125	13	11,946	1.0	14
금산군	25	101	126	11	6,379	2.0	11
부여군	159	375	534	1	8,902	6.0	4
서천군	77	452	529	2	6,471	8.2	1
청양군	188	225	413	5	5,899	7.0	2
홍성군	362	156	518	3	8,553	6.1	3
예산군	41	253	294	7	9,922	3.0	7
태안군	92	14	106	14	7,207	1.5	12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8)

● 친환경농업인 현황

- 2000년, 충남 지역의 전체 농가의 39세 미만 비율은 6.7%이었으며 충남의 친환경 실천농가는 6.9%를 보이고 있음. 전체 농가의 60세 이상 비율은 49.3%인데 반해 친환경 실천농가는 42.6%로 비교적 젊은 농가의 참여 비율이 높음
- 2010년에는 충남 지역의 친환경 실천농가의 39세 미만 비율은 2.8% 수준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4.1%p 줄어들었으며, 충남 지역의 60세 이상 친환경 실천농가는 55.5%로 10년 전과 비교해 12.9%p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표 24>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연령대별 분포

단위 :호

구분		2000		2005		2010	
		전체 농가	친환경 실천농가	전체 농가	친환경 실천농가	전체 농가	친환경 실천농가
전국	전체	1,383,468 (100.0)	60,275 (100.0)	1,272,908 (100.0)	87,199 (100.0)	1,177,318 (100.0)	58,441 (100.0)
	39세 미만	91,516 (6.6)	5,173 (8.6)	42,392 (3.3)	3,620 (4.2)	33,143 (2.8)	1,382 (2.4)
	60세 이상	706,148 (51.0)	24,701 (41.0)	741,815 (58.3)	41,908 (48.1)	716,557 (60.9)	35,003 (59.9)
충남	전체	179,550 (100.0)	9,786 (100.0)	163,197 (100.0)	9,197 (100.0)	151,424 (100.0)	3,795 (100.0)
	39세 미만	11,982 (6.7)	677 (6.9)	5,132 (3.1)	338 (3.7)	3,959 (2.6)	108 (2.8)
	60세 이상	88,499 (49.3)	4,172 (42.6)	93,972 (57.6)	4,313 (46.9)	94,254 (62.2)	2,107 (55.5)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2015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비율은 30대 이하가 전체의 2.2%를 보이고 있으며 60대와 70대 이상의 경우 63.7%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의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평균 연령은 무려 64.0세에 달하고 있어 친환경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고령화 문제가 예외일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음

<표 25>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연령 분포(2015)

단위 : %

연령	유기	무농약	전체
30대 이하	2.1	2.2	2.2
40대	9.6	9.5	9.5
50대	25.9	24.3	24.6
60대	30.4	30.2	30.2
70대 이상	32.0	33.8	33.5
합계	100.0	100.0	100.0
평균 연령(세)	63.9	64.0	64.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6)

재인용 : 김창길 외(2016),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03 충남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1. 충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 충남의 농업인력 정책 방향²⁾

- 충청남도도 3농혁신 농정 방향 하에 2011년부터 농업인력 정책을 펼쳐옴
- 1단계(2011~2014)는 11대 추진 분야 가운데 '지역리더 양성'에서 다루어져 '농어촌 지역리더 양성'과 '미래 농업을 선도할 농업 CEO 양성'이라는 시책과 도농교류를 중심으로 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진행해 옴
- 2단계(2015~2018)는 5대 혁신 가운데 '역량혁신'으로 다루어져 '인재육성' 정책을 진행해 옴
- 3농혁신 1, 2단계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리더양성 및 후계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청년 농업인 가운데 4-H에 초점을 둔 사업을 진행해왔고 그 가운데서도 농어촌 마을의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옴
- 하지만 지금까지 농업인력 전체를 다루는 통합적인 체계는 마련되지 못하고 리더 양성에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후계 인력과 관련해서는 영농후계자 육성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옴. 특히 이러한 사업의 방향은 정부의 농업인력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충남의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 농업인 육성

- 지자체 단위의 귀농귀촌 정책은 사실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어 옴

2)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 계획(2018), 필자 작성 부분

- 충남 역시 중앙 정부의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지침에 따라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2009년 7월 제정, 2015년 9월 개정 및 시행)를 제정한 이래, 현재는 정부의 ‘귀농귀촌 5개년 계획 수립’과 연동한 형태로 충남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음
- 문재인 정부에 들어 청년층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귀농귀촌 정책의 주요 목표로 청년층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충남 역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
- 충남에서는 ‘귀농·귀촌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이라는 비전으로 5년간 청년 등 귀농창업 6,500가구 육성을 목표로 함
- 세부적으로는 우선 청년층 인력 유입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30세대 청년층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융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해 공동체 활력 창출 프로그램, 귀농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농업 취창업 및 각종 서비스 수요와 연계한 귀촌 지원 정책에 나서고 있음(충청남도 농업기술원, 2017).
- 하지만 여전히 충남 조례에서는 귀농인만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고 귀촌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귀촌인의 비중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으로 귀촌인을 염두에 둔 청년층 육성 기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 충남에서는 표 26과 표 27과 같은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이 실시되어 있음(2018년 현재)
- 청년 농업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후계농업인과 귀농인과 귀농인이 아닌 자로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있음(김기홍, 2018a)
- 성격으로는 농업(창업, 취업, 교육)과 농업 외(소득, 주거, 공동체), 통합지원으로 나누어 구분되며 농업 가운데서도 주로 창업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마저도 후계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포진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도시청년농업농촌캠프운영, 도시청년 초보농부 네트워크 조성, 영농4-H영농정착지원, 농가숙박형 귀농귀촌교감프로그램,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이 있음

-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은 예비청년 농업인으로 도시청년, 농고생, 농대생, 귀농희망 가족(농가숙박형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지만, 정작 청년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소수에 불과함
-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 농업인 지원 관련 사업은 부족한 상황임(김기홍, 2018a).

<표 26> 충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사업

구분	성격	후계농업인	귀농인	귀농인이 아닌 자
농업	창업	-4-H영농정착지원사업(2010~2017)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2018~)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8~)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사업(2017)	-청년농산업창업지원(2016) -청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2018~) -청년청농안정지원(2016~2017)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2017~) -귀농귀촌정착지원(귀농귀촌설명회)	-귀농귀촌정착지원(귀농귀촌설명회) -(대학생)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교육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2015~2016) -4-H대학운영(2016년부터 창농스쿨 전환)(2013~2017) -청년 농업인 전문가양성 PETC 프로젝트(2017) -영농승계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2017) -4-H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지원(2017)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멘토멘티제)(2013~2017) -귀농귀촌 교육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2016~2017)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2017)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2016~) -귀농귀촌 교육 -(고교생)특성화농고 인력육성 프로그램
농업 외	소득			
	주거		-귀농귀촌정착지원(귀농인의 집) -귀농 주택자금 지원	
	공동체			

자료: 충청남도 3농혁신 백서(2018) 및 2018년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계획

출처: 김기홍(2018a)

<표 27>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시기	지원 주체
4-H 영농정착지원사업	4-H 발굴 및 지원 419명, 22,711백만원(1인당 65백만원)	2010~2017	농업기술원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생산 가공 등 성장기반 지원 15사군 12명, 840백만 원(개소당 70백만 원)	2017	농업기술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산기술 결합 사업 지원 11개소, 550백만 원(개소당 70백만 원)	2015: 5개소 2016: 6개소	농업기술원
4-H 대학 운영	역량강화 교육, 530명 대상 2016년부터 창농스쿨 전환 운영	2013~2017	농업기술원
청년 농업인 전문기양성 PETC 프로젝트	선진농업경영 선진 노하우 습득, 14사군 31명, 네덜란드 방문	2017.3	농업기술원
영농승계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영농승계자 대상 심리적, 물리적 네트워크 강화, 14사군 131명	2017.3~7월 5회	농업기술원
4-H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지원	4-H회 활동지원		농업기술원
도시청년 농업농촌캠프	도시청년(대학생) 농업농촌 이해 증진 총 5회, 175명, 2016: 3회 94명, 2017: 2회 81명	2016 2017	농업기술원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농업농촌 진입 위한 다짐돌 교육, 185백만 원, 10개 농장(멘토 12명, 12개 작목), 연수생 15명	2017	농업기술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대상, 12사군 30명, 300백만 원	2016~2017	농업기술원
청년 창농 안정 지원	창업초기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1년간 9.6백만 원/1인		농업기술원
귀농귀촌(신규농업인) 현장실습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또는 39세 이하 청장년 14사군, 멘티 291명, 월 80만 원(4~7개월) 지원	2013~2017	농업기술원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 청년 농업인 지원 육성단계 22명, 880백만 원(1인당 40백만 원), 창업단계 20명, 지원 800백만 원	2018(육성단계 선발) 2017.8선발 (2018년 실시)	도청 친환경 농산과

자료: 충청남도 3농혁신 백서(2018) 및 2018년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계획
출처: 김기홍(2018a)

04 충남의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실태

1. 충남의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 충남의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개요

-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고령화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하는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함
- 사업 추진 체계: 총괄은 충청남도청 하고 있으며, 사업 지원 주체는 시장, 군수이며 실질적으로는 지역 멘토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며 지역에 따라 청년농부로 구성된 법인이 주도가 되고 있음
- 교육 훈련: 친환경청년농부법인이 권역별로 멘토를 맡고 있음
- 대상: 친환경 청년농부로 하며, 창업과 육성으로 나누어져 있음
- 사업 규모: 5년간 총 250명을 선발(매년 50명 수준)하고자 하며 5년 후인 2022년에 인증면적 목표를 70ha(매년 신규 14ha/ 1인당 1,400m²)로 두고 있음
- 작목: 친환경 채소류를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창업 단계: 롯데가 100% 지원하며 1인당 4천만 원을 지불하고 있음
- 육성 단계: 도비가 24%, 시군비가 56%, 자부담 29%로 역시 1인당 4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
- 사업 항목: 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와 유통 관련 시설, 농기자재 등에 지출이 가능함
- 추진 현황: 2017년 8월 청년농부 1기를 선발하여 창업 20명, 육성 22명으로 총 42명이 선발되었고 2018년에는 10월에 창업이 30명, 육성이 29명 선발되었음

2.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현장 조사

●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현장 조사 개요

- 충남에서 진행 중인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지역 2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현황 및 청년농부 지원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였음
- 2018년 10월 12일에는 논산시 들녘영농조합과 11월 12일에는 아산시 아름드리영농조합을 방문하여 2~3시간에 걸쳐 권역 책임자(멘토) 면담을 실시하였음
- 면담 결과는 크게 운영 현황과 지역과의 관계, 교육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정리하였음

● 충청남도 아산시 아름드리영농조합법인

- 면담자: 아름드리영농조합법인 대표

- 운영 현황

- 법인의 설립: 아름드리영농조합은 2013년에 설립되어 현재 조합원은 40명으로, 그 전신은 1999년에 만들어진 푸른들영농조합임. 이후 지역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인 '제터먹이'를 설립하였고 가공품에 중점을 둔 아름드리영농조합을 재결성하게 되었음
- 청년층에 대한 고민: 제터먹이 협동조합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아산의 농민들로 구성된 아산농민재단에서도 청년층 육성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임
- 진행 경과: 아산권역은 아산시와 천안시, 예산군을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명이 선발되었음. 하지만 지역에서 땅을 구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작년에 선발된 10명 가운데 8명이 나간 상태로 중도 포기자만 30~40%에 이름
- 지역 현황: 현재 아산 지역에는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사업까지 포함하여 20여명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어 이들을 아우르는 형태로 그룹별로 법인화할 계획에 있음. 아름드리영농법인 1그룹, 소가공 4그룹, 사업자 법인 5그룹을 고려하고 있음. 현재 충남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사업은 아산시 읍면면에서 진행 중인 신활력 사업의 밑거름 조직으로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음
- 청년 농업인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인 것으로 기존의 농민들과는 농업에 대한 생각은 물론 생활방식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기본적인 방향성: 기업 형태의 영농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형태로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목표를 두어야 함. 또한 청년층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 시스템이 되어야 함
- 향후 과제: 현재의 하우스 2동 규모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유기농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실무자가 없는 가공 공장을 전제로 하여 일주일에 2번 정도 농산물 수확을 통해 일손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음
- 판로: 지역의 한살림으로 내려고 하고 있지만 기존의 회원만으로도 포화 상태라 쉽지 않으며 소비자와의 노동 직거래를 하고자 함

- 지역과의 관계

- 지역과의 연계: 아산의 친환경농업 실천의 근본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 차원의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음. 한살림 운동 전부터 해 온 소비자와의 직거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고 있으며 그간의 자산으로 만들어진 아산농민재단 활동을 통해 사회 환원과 지역 농업 연구 등 역할이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이번에 청년농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음

청년농 육성에 대한 합의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가장 큰 문제인 땅을 재단이 사서 임대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으며, 농사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멘토법인들은 교육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음

- 지역의 역할: 본 사업의 성과를 단기간에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경우 유기농 필지를 얻게 된다면 유기농산물 생산이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농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조금씩이라도 청년에게 양도해 가야 할 것이며 오랜 기간동안 유기농업을 해 온 선배로서 농업 문제를 소득이 아니라 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판매하는 로컬푸드 문제 역시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농민 철학을 통해 소농들을 육성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공생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 멘토의 역할: 판로는 조금씩 안정되기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며, 멘토로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일에 간섭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며 멘토 역시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교육

- 청년 육성 프로그램: 내년부터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지역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층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음

2~3개월 청년층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경영 코스 과정을 개설하며 컨설팅을 통한 유통, 가공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임

기본적으로는 청년층에게 뛰어놀 '장'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비전을 설계해 나갈 계획임

- 현장 지도: 아직은 특별히 없으며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음

내년부터는 지역의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음. 세부적으로는 농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순회하면서 작부 설계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지역의 임원들이 청년과 만나고 있음

기존의 지역 기반이 있는 육성능 청년들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음

작년의 경험으로는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갖추고 있었음

정부 지원 사업인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 사업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3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함

－ 필요한 지원

- 단계적 과정: 아산의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구성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청년들에게는 2년, 3년의 기간으로 농사를 배우고 경험하는 일이 중요함
- 거주지 제공 및 탐색 과정: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에 앞서 아산의 경우 청년들이 내려와도 먹고 잘 곳을 마련하기 어려워 하우스 한 동 정도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지역 일을 도와가면서 농사짓고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
- 체계적 과정: 기반 없는 청년들이 2~3개월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를 배우고 스스로 농사가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후에 1, 2년 과정의 실천농장 형태로 넘어가야 할 것임. 이후 지역에 남겠다고 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함

● 충청남도 논산시 들녘영농조합법인

－ 면담자: 들녘영농조합 대표

－ 운영 현황

- 법인의 설립: 청년 농장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친구인 친환경 청년농부 1기생의 참여로 함께하게 됨

당시 논산은 학교급식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통사업단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맡게 되었지만 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농가 조직화가 쉽지는 않았음

그러던 가운데 재작년,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해보자는 지역의 농민 40여 명이 모여 새롭게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5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음

논산 지역산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광역사업단과 연계해가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해나가고 있음

- 진행 경과: 회원의 이탈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운영비로 2억 8천만 원이 추가된 상태임

사업대상자는 지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개를 받았으며 관행농업에서 전환한 경우도 있으며 포기한 사례도 발생함

2017년 총 12명, 2018년에도 현재 12명이 선발된 상태이며, 총 24명 가운데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도 있어 가능한 한 법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하며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 원을 받고 있는 등 처한 사정에 따라 월급 형태로 지불하고 있음

청년층의 역할은 단순히 농사뿐만이 아니라 물류 유통 전문가, 행정 전문가, 빵 전문가 등 다양하다는 인식하에 행정적인 역할이나 물류 담당의 일도 함께 배우고 있음

- 지역 현황: 타 지역의 경우 땅을 구하지 못해 사업 이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논산에서는 땅 문제는 법인에서 해결하고 있음

멘토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조직 강화를 통해 멘토 법인이 청년들을 잘 견인하여 지역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함

친환경 조직 강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기본적인 방향성: 지금까지 로컬푸드 제빵과 카페 운영도 함께해 왔으며 체험농장까지 확장하는 한편 법인을 농장화하여 제조와 가공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논산에서는 개인의 형태가 아닌 협업 모델에 의미를 두고 있음

기본적으로 시설 하우스의 생산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

- 생산 여건: 올해는 폭염으로 하우스 개보수에 힘을 쏟아왔으며 측면 개폐를 통해 하절기에는 노지 수준으로 오픈하여 시설하우스를 놀리지 않고 작물 키우고 작업 환경을 선진하게 조성하였음

주로 기존 하우스를 개보수하고 지역의 멘토와 청년 1~2명을 매칭시켜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마련함

- 향후 과제: 우선적으로는 청년층이 단독으로 생산물 생산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월급 받는 농민을 육성하고자 하며, 향후 독립을 희망하는 농민에게는 법인 차원에서 시설이나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임

현재 교육생들은 지역에서 거주지 마련이 어려워 대전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임

- 지역과의 관계

- 지역의 역할: 논산은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딸기 클러스터 단지(파산) 900평을 법인에 서 인수한 상태로 제빵제조와 농가공품을 위한 냉동 및 저장 시설로 활용할 계획임

청년층이 지역에 잘 정착하게끔 하고 기반을 만들어 주는 협업의 역할을 해내게 될 것임

- 멘토의 역할: 멘토 차원에서 하우스 시공과 A/S 등 업체 선정, 시설 설계 등을 맡아서 하고 있으며 지역 농지 활용과 지역 농업 기술 전수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역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 해결해 가고자 하고 있음

- 조직의 강화: 작년 사업 이후 논산은 조직이 많이 강화되어 차세대 농민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논산의 미래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음

영농조합법인으로는 한계를 느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논산의 친환경 농업 교육 기반이 아직은 매우 척박하여 기반 없는 청년층 진입이 어려워 이제부터 만들어 가고자 함

충남의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을 시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틀은 물론 명분과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면서 내년에는 6차산업화 관련 시설을 설립할 예정임

농업기술센터의 품목연구회가 있지만 자율적인 농민 조직은 없었는데 본 사업을 통해 논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조직이 강화되고 있으며 생산 면적과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음

- 지역의 역할: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이 진행되는 5년 동안에 지역법인이 실력을 갖추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지역에서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통해 작부와 유통에 대한 실력을 갖추

어 가야 함. 특히 논산의 친환경농업 급식을 통해 기회를 살려나가는 일이 필요함

- 교육

- 교육 내용: 경험이 부족한 창업농의 경우에는 트랙터 운전에서부터 상추 따는 법까지 하나씩 함께 배워가는 협업을 기본으로 하고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기본소득 개념이 필요함

현재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한 로테이션 방식으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기술센터 등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힘으로써 자체적인 교육을 소화하고 있음

-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교육의 필요성: 친환경농부 사업을 1년 진행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친환경 농업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사고로 농약을 몰래 치는 일이 발생하여 롯데에 납품하는 대파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함

법인이 관리하는 하우스에서는 자체나 영농 형태가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지만, 기반있는 농장의 육성 단계 청년농에서 발생한 일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함

또한 지역 관행 농가들의 조언으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여 보다 통일된 형태의 친환경 농업 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게 됨

- 필요한 지원

- 교육 부분: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술센터가 아니더라도 현장의 농업 연수를 교육 과정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공성을 가진 법인이나 농장을 지정하여 연수 받게 함으로써 지역에서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음

- 소득 지원: 현재 논산의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법인에서는 학교 급식 참여 농가 및 청년층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거주지 관련: 논산시는 농지가 많으며 땅값은 비싸지 않은 편이지만 외부인에 대한 거리감이 있는 상황으로 시 차원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음

- 정책 지원 및 법인의 역할: 정책적으로는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교육된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며 친환경 분야 전문가의 도입도 필요하며 지역에서 그런 역할이 가능하도록 법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법인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임

05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시사점

● 친환경농업 실천 청년 육성이라는 큰 역할에 대한 인식

-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은 향후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나갈 청년층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국을 통틀어 친환경 분야에 집중된 형태의 유일무이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현황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한 고령화 문제는 후계 인력이 없을 경우 이제껏 오랜 시간에 걸쳐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온 친환경 농지가 관행농업으로 돌아가 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고령화 문제와는 또 다른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을 처음부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교육하고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이 갖는 의미와 그 역할은 매우 크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체계적인 단계 및 과정에 대한 검토

-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은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층에게 시설하우스 2동을 내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프라의 확보와 안정적 소득 측면에서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우스 2동만으로는 기반이 전혀 없는 가운데 농사를 곧바로 짓기는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에 진입하기 전 단계의 단기 교육 과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청년농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보완 장치와 주거 및 토지 확보에 대한 방안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단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사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미 현장 단위에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을 활용하여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발견되기도 함. 또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프로그램에서 역시 준비된 친환경 청년농부의 역할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여기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자금 지원까지 연계된다면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강화

-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권역별로 멘토를 마련하여 지역 정착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권역별 사정과 역량에 따라 멘토의 역할에 차이가 나는 상황임
- 지역 단위에서 멘토가 청년농부를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술 교육까지 겸할 수도 있으나 교육 역할을 전적으로 멘토에게 맡기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지역 단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혹은 친환경농부운영협의회 등에서 도움을 받아 정기적인 혹은 특강 형태의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권역 단위를 넘어선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단위 논의 기반

- 현재 권역 단위를 넘어서서 친환경농부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회의 및 논의의 장이 개최되고 있기는 하나 청년농부들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 할 것임
- 향후 충남 친환경농업을 책임질 핵심 인력으로서 이들의 네트워크는 결국은 충남 친환경농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에 정착하는 전 단계에 걸쳐 이들의 실천과 노력의 과정들이 기록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인력 육성의 귀중한 자산으로 남게 될 것임
- 또한 이들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권역 멘토에게 주어진 역할을 지역 단위 협의체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앞에서 언급한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의 연대는 물론 마을 단위의 이장 등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에 대한 지역의 합의와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 청년농부는 결국은 권역이라는 큰 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에서 정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농지나 주거 확보, 나아가 지역 공동체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지역협의체와 연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마을 단위에서는 훈련된 친환경 청년농부를 지역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충청남도 친환경 청년농부 기본 계획 필요

● 충청남도의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의 비전과 기본 계획 필요

- 줄어드는 농업 인력과 고령화 되어 가는 친환경 분야의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친환경농업을 계승할 청년농업 인력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인 충청남도만의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에 대한 비전과 기본 구상을 반영한 기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의 비전과 기본 계획은 한 해에 그치지 말고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이어야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 가야 할 것임

● 현실적인 충청남도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구상 필요

- 체계적 구상 : 친환경농업 분야의 청년농부 확보는 친환경농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현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농정 방향과도 일치하며 농촌 지역의 다양한 농업 환경 보전 요소를 친환경농업을 통해 사전에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농업에서 나아가 농촌 지역 사회를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는 체계적인 구상이 필요함
- 맞춤형 구상: 현재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은 창업형과 육성형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청년농부의 형태는 더욱 더 다양할 수 있음. 아산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친환경 청년농부 전 단계의 단기 교육 형태나 논산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월급 형태의 고용형 등 지역이 처한 상황과 예비 청년농부의 역량 및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더 많은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도중에 포기하는 실패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전략적 구상: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지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청년 귀농귀촌인의 비율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 현재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귀농귀촌 유입과 정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직접 지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충남에서 실시 중인 본 사업을 귀농귀촌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보다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위해 농촌으로 정착하려는 많은 청년들을 친환경 청년농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참고자료

<연구문헌 자료>

- 김기홍(2017).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실태 및 정책 방향. 충남리포트 Vol. 288. 충남연구원.
- 김기홍(2018a).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사례. 농촌 지도와 개발, 25(3). pp. 161-173.
- 김기홍(2018b). 귀농귀촌 개념과 정책 방향 재정립에 관한 연구: 충남 사례를 기반으로. 농촌사회, 28(2). pp. 47-86.
- 김창길 외(2016),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2016),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삼락농정포럼 발제문.
- 마상진(2017)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 및 행정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 2017년 귀농어·귀촌인통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8),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통계.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2018). 충청남도 3농혁신 백서. 예산: 충청남도 도청.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2018).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 예산: 충청남도 도청.
-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2018). 2018년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계획. 예산: 충청남도 도청.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총조사. 대전: 통계청.